

李대통령 “영산강 1000일후 생명의 강 재탄생”

영산강살리기 첫 삽...광주 남구 승촌보서 희망 선포식

영산강을 친수·친환경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영산강 사업이 22일 역사적인 ‘첫 삽’을 뒀다. <관련기사 3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 남구 승촌동 영산강 6공구 승촌보 사업현장에서 영산강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성공을 기원하는 ‘영산강살리기 희망 선포식’(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만의 환경부장관,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2천500여 명이 참석,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제 호남의 속원이 풀리게 됐다”면서 “영산강은 4대 강 중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천일 후면 영산강의 발원지인 담양 용추봉에서 목포 하구언까지 350리 길을 굽이치며 남도의 대지를 고루 적시는 생명의 강물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영산강이 진정한 호남의 젖줄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곳 영산강은 가장 시급한 곳이고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사·도 민 여러분의 열성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기에 가장 먼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영산강 유역을 끼고 있는 목포와 나주시, 무안·영암 등 전남지역 8개 자치단체장은 “지역민 동참 유도과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영산강을 21세기 신 르네상스를 여는 녹색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광주 시내 한 식당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

남지사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정·재계 및 언론사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연구·개발(R&D)특구 지정 및 육성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고, 전남도는 ▲F1 대회 지원 ▲해상풍력산업 시범 단지 조성 ▲호남고속철도 무안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산업은 전남이 전국 최대 입지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광주는 이미 광산업 클러스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R&D특구로 지정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TX의 무안 국제공항 경유 요청에 대해서도 “1년이라도 빨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완공시켜야 한다”면서 “경부고속도로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내 철학”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최권익기자 cki@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후 광주 남구 승촌동 영산강 6공구(승촌보 사업 예정지)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서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과 손을 맞잡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완준 화순군수, 이 청 장성군수, 박인환 전남도의회의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박광태 광주시장, 이 대통령,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서삼석 무안군수, 김일태 영암군수, 주영찬 담양군수 권한대행. <광주·전남 사진공동취재단>

‘실력 광주’ 올해도 계속된다

33개교 수능 가채점 ‘SKY大’ 합격 가능 상위권 30% 늘 듯

‘지난 5년간 수능 성적 전국 1위’의 명성을 이어온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수능 6연패 달성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광주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고

려대 등 이른바 ‘SKY대학’ 합격 가능성이 높은 상위권 학생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대 수시 특기자·지역균형발전 전형 1차 합격자도 정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에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지역 인문계 고교 47개교 진학실장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를 전화 인터뷰 했다. 이번 조사에는 고3 수험생이 없는 신설 학교와 답변을 거부한 학교를 제외한 33개교 진학실장이 참여했다.

그 결과 1등급 수준인 자연계열 450점 이상, 인문계열 470점 이상(원점수 500점 만점 기준)은 모두 3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33개교만을 기준으로 지난해 가채점에선 올해 상위권과 같은 수준의 학생이 237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상위권 학생의 증가는 30%대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대입에선 표준점수 변화와 각 대학의 영역별 가산점 등 변수가 많

지만, 원점수만을 기준으로 할 때 자연계 450점 이상, 인문계열 470점 이상을 받아야만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고려대의 주요 학과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올해 수리 ‘나’의 평균 점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문계열의 경우 480점대 이상이 돼야만 서울대 정시합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광주에선 35명 정도가 이 점수대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려운 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엔 가채점 당시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 등 인기 학과의 합격 가능 점수는 자연 430점대 후반, 인문 460점 이상으로 예상됐었다.

전년보다 601명이 줄어든 서울대 수시 특기자·지역균형발전 전형 1차

에선 지난해(86명)보다 16명이 늘어난 102명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는 26~27일 2차 논문·면접 시험을 치를 예정이며, 지난해 이 전형의 광주지역 최종 합격자는 50명이었다.

이번 인터뷰에서 진학실장들은 원점수의 가채점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모든 응시자의 표준점수 등 성적 분석 자료를 발표해야만 지원 가능 대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박완준 광주지역 진학실장협의회장(송원고)은 “원점수로 어느 대학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등이 나와야만 합격 가능 대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특히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도 크게 다르므로, 대학별 환산점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예단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가채점에서 광주지역 최고 득점자는 인문 493점, 자연계는 487점으로 잠정 파악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야간)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 1. 모집인원 및 분야: 가. 모집 정원 10명, 나. 모집 분야: 행정학 석사과정(야간) 10명
- 2. 모집자격 및 전형방법: 가. 학력: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나. 학력: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다. 학력: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 3. 응시료 및 접수: 가. 응시료: 200,000원, 나. 접수처: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4. 면접 및 합격: 가. 면접: 11월 23일(월) 12:00, 나. 합격: 11월 23일(월) 12:00

알림

光州日報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58기 수습기자 및 경력사원 모집

권위와 전통의 광주일보가 수습 및 경력사원을 공채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의 환경속에 명석한 판단력과 창의적 사고력으로 저널리스트의 길을 함께 갈 젊은이들의 많은 도전을 기다립니다. 긍지와 보람의 광주일보와 함께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모집부문	전형방법	자격 및 대상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1977년 이후)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경력 사진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종합일간지 사진기자 경력 2년 이상 인자
경력 전산직사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종합일간지 전산조판 경력자 또는 전산 그래픽 경력자

<공통> 해외어학 경력사유가 없는자, 남자는 병역필자
*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상식, 논문

2. 제출서류

△수습기자
입사지원서 1부 www.kwangju.co.kr 소정양식 다운로드 규격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장 이내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외국어 성적증명서(소지자에 한함)

△경력 사진기자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음 사진설명을 첨부한 8페이지 내외의 보도사진 포트폴리오

△경력 전산직 사원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음 설명을 첨부한 4페이지 내외의 편집 또는 작품 포트폴리오

3. 전형 일정

전형방법	일 정
입사지원서 접수	11월 19일~12월 9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2월 11일 개별통보
필기시험	12월 13일(일요일) 오전 9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2월 14일 개별통보
면접	12월 16일 오전 10시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17일 광주일보 지면 및 개별통보

▷접수처: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 광주일보사 총무부 (우편접수는 12월 9일 소인분 까지 유효)
▷필기시험 장소: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공고

제5회 광주일보 문학상 김옥애씨

동화 ‘늦둥이’로 수상

‘제5회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자로 동화작가 김옥애(64·사진)씨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단편동화 ‘늦둥이’.

<인터뷰·심사평 13면>
김형중(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 등 광주일보문학상 심사위원단은 응모한 동화 ‘늦둥이’에 대해 “구성, 중심, 갈등, 결말의 시점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늦둥이 사나우를 둔 할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이 동화의 전면에 잘 녹아 있는 우수한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